

'진화하는 공룡' 중국농업 현장을 가다

③ 미래의 위협 친환경농업

맞춤형 '녹색식품' 韓·日 시장 노린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담농업의 탈출구는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다. 친환경농업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을 제공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미래농업의 대안이다.

근래 한국 농업을 옥죄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농산물은 헐값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은 중국의 저가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는데, 한국의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려는 전남의 경우 향후 중국은 큰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도시인 북경, 상해, 천진시의 대형 할인매장에 가보면 일반농산물보다 2~3배 비싼 친환경농산물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소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이들을 겨냥한 친환경농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고소득층을 5%로 가정할 때 약 6천500만여 명의 인구가 해당하며 이는 우리 남한 인구보다 더 많다.

중국의 친환경농산물은 현재 높은 가격, 낮은 신뢰성, 비합리적인 유통구조 때문에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산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고 중국정부의 육성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中 저가 농산물, 전남에 직격탄

그 확산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일부 지역은 이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로 조성되었다. 기후여건이나 자연환경 보존상태가 좋아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비교적 쉬운 흑룡강성, 내몽고, 산시성, 산둥성, 강소성, 사천성, 복건성, 길림성, 요녕성, 신강, 호북성 등이 친환경생산단지로 육성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친환경농업단지 지정된 곳은 748개로 중국 전체 '녹색식품' 상품 총수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흑룡강성과 강소성의 녹색식품 생산은 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내몽고와 흑룡강성의 녹색식품 유통량은 전체의 59%, 산둥성·복건성·복경시의 녹색식품 제조 생산량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농업은 전체 농산물 중 1%를 점유하고 있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독특한 사회주의체제에 기인한 요인도 있으나, 농업부문에 자본주의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수출지향적 정책이 가미된 결과다. 중국의 친환경농업 육성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중국의 친환경농업은 수출지향적이라는 것이



중국의 친환경농업은 국가 중요정책인데다 규모화와 수출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친환경농업을 침체의 탈출구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과일과 채소류.

中 고소득층 친환경 바람...3배 비싼값에도 날개 돋힌 듯

'생태시범구' 선정→성공모델 발굴→지역 파급 전략 채택

다. 중국의 친환경농업, 특히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생산은 국내 농업의 육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세계 유기농산물 시장

동부지역 토양·기후조건 우수

을 노린 일종의 무역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토양과 기후조건이 우수한 동부 지역(동북 3성과 산둥성, 허북성 등)에서 생산되는 고급 제품들이 주로 일본, 한국 등을 잠재적인 수출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현저하게 나타나는 중국산 채소류의 수출 증가와 현재 강화되고 있는 녹색식품의 조직유통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녹색식품의 국제시장으로 수출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 중국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은 대단위 지구를 중심으로 생산시범단지를 조성, 육성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은 '생태시범구'를 선정해 지역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농업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광역과 지역중심으로 구분, 상호 유기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농업의 현실을 고려한 때문으로 생태시범구를 통하여 친환경농업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으로 파급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체계를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이 국가나 지역 또는 개인 특성에 따라 그 농법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고 이를 10개 모형으로 정형화해 보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단위 연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정립된 모형의 성과는 생태시범구를 통해 실험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을 고급화하고 이를 수출과 연계한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생산에서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중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주체는 농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녹색식품은 농장, 가공, 유통, 무역 등의 활동까지 포괄하는 기업에 의한 인증 참여가 두드러진다. 녹색식품에 참여한 기업들

은 대규모의 유명한 기업들이 많고 제품 역시 중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 많다. 생산 과정에 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중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저장성과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농가와 농촌경제의 발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업'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주체

마지막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이 많다는 것이다. 녹색식품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이미 중국 정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중앙정부가 관심은 많으나 친환경농식품 생산, 가공, 유통의 주체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녹색식품의 시장 개척을 위하여 각 지역의 기업들은 녹색식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지방정부에서는 기업들이 녹색식품도매 시장, 배송센터, 전문점, 전문판매대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글·사진 조창완

<경제학박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cwcho@gjdi.re.kr>

■ 중국의 친환경농업 정책



중국에서도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한 식당의 모습.

녹색·유기·무공해농산물 등

친환경농식품 '3원화' 관리

중국의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농식품의 관리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녹색식품', '무공해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으로 3원화되어 있다. 녹색식품은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제도이고, 무공해농산물과 유기식품은 최근에 실시되기 시작한 친환경농식품 범주이다. 녹색식품은 농약, 비료, 첨가제 등의 화학적 생산자재 및 기타 인체와 생태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 농장에서 생산되고 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쳐 녹색식품 표시의 사용을 허가받은 식품이다.

중국의 녹색식품은 A급과 AA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A급은 생태환경의 규정에 맞는 원산지 제품을 말하며, AA급은 유기식품과 동급으로서 A급보다 규정과 검사 항목이 더욱 강화된 제품이다. 녹색식품의 생산은 1994년 이후 제품 수와 생산면적,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녹색식품의 수출액은 1997년 7천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6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녹색식품의 국제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되면서 녹색식품 표시상표를 일본과 홍콩에 등록하고 있다.

무공해 농산물은 '산지 환경, 생산 과정, 농산물 품질이 국가 관련 표준과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여 인증 합격을 통해 인증 증서를 획득하고, 아울러 무공해농산물 표시 사용을 허용한 원료 농산물과 1차 가공한 식용농산물'을 가리킨다. 2003년 현재 각성의 무공해농산물 생산지도 인정된 곳은 7천758개, 인증된 곳의 무공해 농산물의 종류는 7천119가지로 나타나 그 확산 추세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중국의 유기농업은 유기식품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인증을 부여하고 유기농식품을 중국 농산물 수출의 선두주자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의 유기농업은 유기식품 도입 초기인 2003년 기준 전국 58개 기업에서 146개 품목을 유기식품으로 인증했으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 중국의 유기농산물의 총 재배면적은 7만 7천ha, 유기농산물 생산량은 대략 35만t으로 추산되고 있다.

BRAVIA RONY

브라비아 2년 무상보증 서비스 실시!

R-Series V-Series E-Series S-Series

BRAVIA

062-511-3000

LA JIJI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양입하

MAESTRO, DAKS, TOWNING, INGI, JALFAMA, DAK COOL

LA JIJI

상설할인마트 서빙점 062-511-0249